

서울 시내 일 간호대학 입학생의 4년간 개인 및 대인가치관의 횡단적 조사 연구*

최 연 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고 찰
- VI.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의 한국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격심한 사회변동, 즉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달, 인구도시화, 가족 구조 및 기능변화 그리고 윤리적 생활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격심한 가치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간호적 종사자들은 급속한 과학발전, 자원분배의 결핍, 노인인구의 증가,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변화 속에서 매일 간호행위를 할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허다하다. 이 사회는 더욱 복잡하여지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간호교육은 간호전문인을 육성시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호전문인의 윤리적 요소는 부해나 선행의 이타적 원리가 중시된다. 간호는 고도로 발달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대상자가 비인간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도전을 받고 있고 대중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문국진, 1981)

Styles (1982)는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자로 하

는 분야로서 간호교육시 교육목표와 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나 간호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치관을 제시하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간호사들의 건강관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은 9%, 의사중심은 18%였고 62%는 제체중심이었던 Sweider(1985)의 보고나, 간호요구 중요도에 관한 박주봉(1976)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와 간호사 간의 간호활동 중요도의 전례 차이가 보고되었다.

AACN(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은 전문간호사에게 필요한 7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했는데 이들은 이타주의, 평등, 심미, 자유, 인간존엄성, 정의, 그리고 진리이다. 이러한 7가지 가치에 준거하여 대상자를 간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건강관리 종사자와 동료간에도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문인으로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결정하는 가치를 측정하고 또한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Ketefian(1983)은 도덕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도덕적 합리성의 개발이 가치교육의 접근으로서 특히 중요하고 이러한 도덕적 합리성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도덕적 합리성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교육준비의 형태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전략에 의하여 도덕적 합리성이 개발되면 간호사가 윤리적 갈등에 처했을 때 그들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직업적 가치는 전문 간호집단이 보충한 가치들이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도덕적 가치는 간호사의 행동규범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Rokeach(1973)는 가치는 역동적이고 태도나 신념과 같은 정서적 개념보다는 더 강한 동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직 간호사들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내면화된 가치에 의하여 동기유발을 갖게 되고 이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간호대학교육이 질적, 인간적,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관을 입학 당시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봉숙(1988)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와 건강전문가 간의 간호교육 내용별 중요도의 우선순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같이 간호대상자의 건강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 요인이 작용될 수 있으나, 간호사들이 대상자를 간호할 때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인본주의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핵심요소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치관은 인간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 행동하게 하는 중심요소이기 때문이다(전산초, 1979).

정범모(1982)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건강권이 기본욕구로서 충족되려면 건강관리의 이타주의적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이타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인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닌 간호사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입학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몇 년 간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Y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의 입학시 가치관과 해마다의 변화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이나 과목개요 설정의 범위 및 기준조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지도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1. Y대학교 간호대학 신입생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2. 간호대학 입학생의 가치관에는 매년 어떠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가?
3. 입학생의 출생지, 종교, 아버지의 직업, 아버

지의 연령, 형제수, 그리고 장래희망 등의 제변수와 가치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3. 가설

1. 간호대학 입학생의 가치관은 해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치관은 입학생의 일반적 특성(학년, 출생지, 종교,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연령, 형제수, 그리고 장래희망)의 세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체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에서 Gordon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것이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잘 설정되지 않아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II. 문헌고찰

가치는 사물이나 행위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뜻을 갖고 있으며 나타난 사물이나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시인 혹은 추구의 대상이 된다.

윤리학에서는 가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선과 의의 개념이, 미학에서는 미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가치라는 말을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 혹은 욕구의 만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나타내어 각 영역마다 제각기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문제에 대한 가치를 다룰 것이다. 가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소유하고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가치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 개념으로 정의된다(정범모, 1982). 그는 또한 행동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Grunberg(1978)는 가치관은 인간의 경험과 관련되어 특성지어지고 판단되어진 양식이라고 확인하면서 가치관 그 자체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나 단지 주어진 인간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가치는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데 정서적인 경향이 능후하다고 하였다.

Rokeach(1973)는 가치는 모든 행동과학의 다양한 흥미를 단일화하는 매개변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가치는 행위의 특수한 양식 또는 존재목적 상태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Rokeach, 1973). 가치는 계속된 행위를 주도하는 표준이고 가치관은 갈등을 해결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일반적 계획안이라고 하였다.

이상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은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가치기준의 습득에 의하여 전문직 기준과 윤리강령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고위되어 실제 간호업무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을 하여 적절한 상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Kramer, 1970).

Sheages(1988)에 의하면 간호대학 상급학년에서 졸업할 때까지 가치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지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다(정범모, 1982).

첫째, 가치관은 크게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한다. 즉, 무엇을 원할 것이며 어니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둘째, 가치관은 우리의 지각과 가치관을 크게 좌우한다.

셋째, 가치관은 우리가 인생의 어디에서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넷째, 가치와 가치관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가치관 여하는 한 사람의 행동 내지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가치관은 곧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 지각과 해석, 판측과 의의 그리고 평가기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한다.

Carr(1970)은 가치실현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아형성을 의미하며 오로지 이러한 과정만이 인간을 아분담게 하고 진정으로 개화된 정신을 소유한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다. Plato는 대학이 정의와 미덕으로부터 분리된 지식만을 전달한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교활한 교육이 된다고 강조하고 대학교육에 있어서 인간가치, 지식 및 생활양식이 모두 통합된 교육만이 진정한 대덕교육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은 도덕적 행위형태와 사회에 있어서 윤리적 강제성을 띤 도덕적 예술이라고 Sarvimaki(1988)는 정의하였다. 간호실무는 과학적 지식, 대인관계, 지적, 기술적, 예술적 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가치를 받아들이고 이 가치가 모든 간호사에

의하여 실현되어져야 한다(Mackenzie, 1971, La Monica, 1979, Potter & Perry, 1985). 그리하여 간호철학은 인간존엄에 대한 존경심, 책임, 희생과 충실, 사랑 등에 근거한 충성심을 고무격려하고 양유하며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Erickson, 1983).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교육만이 비인간화되고 침단과학 기술화된 간호교육을 재정비하고 절저. 인간적이며 전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할 수 있다.

Veins(1989)는 19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는 간호사의 윤리강령이 1976년 이후 변화됨으로써 간호기능과 역할수정 및 확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직업관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Neaves(1989)는 간호사가 도덕적·윤리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간호사는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McElmurry(1989)는 간호사는 매순간 가치와 상황 사이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간호교과에 간호윤리나 가치관에 관련된 내용은 극히 부족한 상태임이 지적되고 있다(Hedin, 1989). 한편 Grossman(1989)은 3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호사는 인간을 돌보고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단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보고를 통하여 본 때 우리는 간호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의 가치수준에 관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Mustapha와 Seybert(1989)는 인문세열 대학생 두 집단과 간호학생 한 집단을 대상으로하여 인문계열 대학생 한 집단에게는 통합된 교육과정을 교육시키고 나머지 두 집단에게는 전통적인 교과교육을 시킨 후에 통합된 교과과정 교육집단에서 도덕적, 학리적 사고능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Kramer(1976)의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초간호과정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1985년 Watson은 인간과학과 인간간호로서의 간호이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과학과 인간애를 조화시킨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Fry(1988)는 간호학에 있어서 윤리적 틀뎀은 간호학을 전문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간호전문직특성은 과학적인 교과과정 내에 가치관도 함께 포함하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경혜(1985)나 김인숙, 전산초(1988)가 간호대학 1,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횡단적 방법

으로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학년 간에 유의한 가치관의 변화유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한 것은 간호교육 과정에 가치관 변화를 위한 의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Frisch(1987)는 많은 간호교육자들이 도덕적 논리성숙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며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에서 행위선택을 해야 할 상황일 때 논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돕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의식으로 가치교육을 전수시킨 가치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시킨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2주마다 clinical post conference 때 가치분석 방법을 학습한 집단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자들이 종래의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교육방법 전략을 세워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인의 역할 중 하나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하여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그리하여 동기나 동인을 가지게 함으로써 간호행위시 직업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도모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가치관을 조사하여 매해 변화되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변화를 위한 간호교과 설정에 유용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Y대학교 간호대학 입학생 1988년도(94명), 1989년도(89명), 1990년도(91명), 1991년도(84명)의 총 35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Gordon(1968)에 의해 개발된 SPV(개인가치관 측정도구)와 Gordon(1970)에 의하여 개발된 SIV(대인가치관 측정도구)를 1986년에 황응연과 이경혜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개인가치관 측정도구: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1) 실용성 (Practical Mindedness, P):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실직적이고 효과적인

일을 한다. 활용가치 있는 일을 한다. 자신의 것은 무엇이든 충분히 활용한다.

- 2) 성취성 (Achievement, A): 어려운 과업에 도전한다. 중요한 일을 성취시킨다. 자신의 일이라면 최고수준에 도달하려고 한다. 복잡한 문제에도 부딪혀 본다.
- 3) 다양성 (Variety, V):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 항상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다. 위험이 따르는 일도 해본다. 자주 여행을 한다.
- 4) 결단성 (Decisiveness, D):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전진한다. 방설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것을 끝내 고수한다.
- 5) 규칙성 (Orderliness, O): 자신의 물건을 잘 정돈한다. 질서를 잘 지킨다. 일을 조직적으로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가진다.
- 6) 목적지향성 (Goal Orientation):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을 한다.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B. 대인가치관 측정도구:

- 1) 지지성 (Support, S): 남이 나를 이해해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남이 나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준다.
- 2) 동조성 (Conformity, C):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 규율을 잘 지킨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일을 한다.
- 3) 인정성 (Recognition, R):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일에 남들이 관심을 갖는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 4) 독립성 (Independence, I):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자신의 절정에 따라 일을 추진한다.
- 5) 호의성 (Benevolence, B):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한다.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적극 돕는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여 일을 처리한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
- 6) 지도성 (Leadership, L):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남보다 앞자리에 서서 일한다. 지도적인 위치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

대인가치관의 신뢰도 계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Kuder-Richardson 20은 .53-.80으로 나타났다고 개인가치관의 신뢰도 계수는 대학생 대상

의 경우 .22-.73으로 나타났다. Gordon의 도구를 황용연 외 1인(1986)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하여 상당부분을 수정하였다. 즉 검사의 이론적 타당도,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예언적 타당도나 공인적 타당도는 행해지지 않았다.

SPV와 SIV는 3개의 진술문이 30set로 구성되어 각각의 3쌍에는 응답자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강제선택형 질문지이다.

각 요인의 최고점수는 30점, 그리고 최하점수는 1점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Gordon이 개발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78-.89), 또한 의대생, 간호대생등 전문직 학생들에게 사용되어 타당도가 높았었다.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자료수집은 1988년 3월부터 1991년 3월 사이에 연구원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가치관의 관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치관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산출하였고 학년간과 일반적 배경과의 관계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입학생의 가치관

Y대학교 간호대학의 4년간 입학생들의 개인가치관을 황용연과 이경혜(1986)의 개인가치관과 대인가치관 도구에 의해 각각 6가지 하위요인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가치관에서는 목지지향성이 21.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취성이 20.57점, 결단성 20.53점, 규칙성 20.39점, 실용성 19.93점 순으로 높았고 다양성이 17.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인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면, 호의성이 21.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독립성 21.08점, 동조성 20.82점, 지지성 20.25점, 인정성 19.54점, 지도성 17.00순이었다. (표1)

위의 점수를 황용연과 이경혜(1986)의 manual에 의한 여대생의 표준화 점수와 비교해 보면 개인가치관은 78-97 percentile에 속하였고 대인가

표 1. 입학생들의 개인가치관과 대인가치관의 평균과 표준편차 n=358

	개 인 가 치 관			대 인 가 치 관		
	요인	Mean±	S. D.	요인	Mean±	S.D.
실용성	19.93	1.89	지지성	20.25	2.47	
성취성	20.57	2.07	동조성	20.82	2.63	
다양성	17.13	1.92	인정성	19.54	2.41	
결단성	20.53	1.85	독립성	21.08	3.01	
규칙성	20.39	2.51	호의성	21.19	3.43	
목지지향성	21.44	2.30	지도성	17.00	1.67	

치관의 72-97 percentile에 속하였다. 이 결과는 이경혜(1985)의 4년제 간호대학 각 학년을 대상으로 하이 층 262명으로 연구하였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2. 연도별 입학생 가치성향

입학생의 각 연도별 가치성향을 보면 연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개인가치관의 다양성으로, 이는 91년도 입학생이 가장 높았고 88년도 입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각 연도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

요인별로 보면 실용성은 89년도에 가장 높았고 성취성은 90년도, 다양성과 결단성은 91년도, 규칙성과 목지지향성은 88년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인가치관을 분석해보면 지지성, 인정성, 독립성은 91년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조성은 88년도, 호의성과 지도성은 89년도에서 높은 성향을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표. 2).

각 연도별 가치관의 비교를 보면 다양성에서 89학년도 입학생과 91학년도 입학생을 비교한 결과 91학년도 입학생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88학년도 입학생보다 91학년도 입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P<.05). 지지성에서는 91학년도 입학생이 88학년도 입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용성에서는 89학년도 입학생이 88학년도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이 외의 모든가치 성향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각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수는 각 척도의 독립성 수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지도성과 지지성(0.786), 독립성과 지지성(0.635)과 독립성과 인정성(0.610)은 높은 정상관계수를 나타내고 동조성과 지지성(-0.604)과 지도성과 동조성(-0.554)은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50 이하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보아 각 척도의 독립성을 나타내 각 요인간 중첩성이 미미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개인가치관과 대인가치관에 있어서도 상호간 베타적으로 나타나 별개의 가치관을 측정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

간호대학생들의 입학년도별 가치성향을 개인과 대인을 합하여 요인분석을 하면 91학년도 입학생은 인정성, 독립성, 지지성, 지도성, 동조성, 다양성, 규척성, 성취성, 실용성, 목적지향성, 결단성,

호의성 순으로 높으며 90학년도 입학생은 목적지향성, 규척성, 지지성, 다양성, 인정성, 동조성, 결단성, 실용성, 호의성, 독립성, 성취성, 지도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89학년도 입학생은 지도성, 지지성, 호의성, 인정성, 다양성, 동조성, 결단성, 실용성, 성취성, 독립성, 규척성, 목적지향성 순이고 88학년도 입학생은 목적지향성, 독립성, 다양성, 지지성, 인정성, 호의성, 지도성, 규척성, 동조성, 결단성, 실용성, 성취성 순으로 각 학년간의 우선순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간호대학 입학생들의 가치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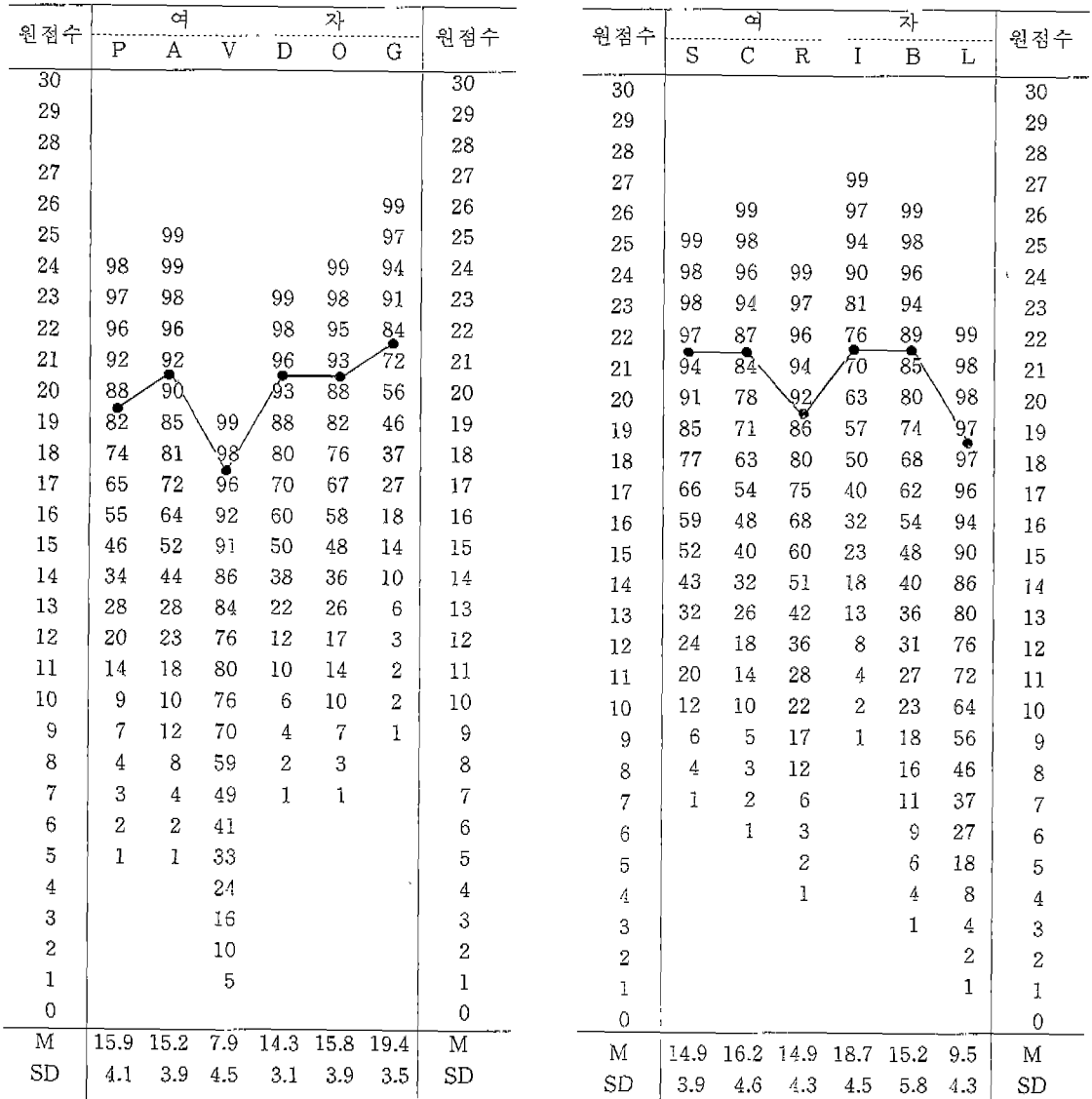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입학생의 가치관 차이의 분산분석

n=358

요인	년도	88	89	90	91	S.S.	MS	df	F	P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									
개 인 가 치 관	실용성	19.64	20.40	19.87	19.90	25.10	8.37	3	2.39	0.0689	89=91=90=88
	성취성	20.66	20.33	20.81	20.29	15.87	5.29	3	1.22	0.3041	90=88=89=91
	다양성	16.75	17.05	17.21	17.65	43.42	14.47	3	3.19	0.0240	*91>89>90>88
	결단성	20.39	20.31	20.65	20.83	16.14	5.38	3	1.58	0.1928	91=90=88=89
	규칙성	20.64	20.57	20.13	20.17	27.39	9.13	3	0.80	0.4937	88=89=90=91
	목적지향성	21.84	21.35	21.22	21.29	27.04	9.01	3	0.87	0.4594	88=90=89=91
대 인 가 치 관	지지성	19.89	19.88	20.46	20.83	1097.51	365.84	3	1.75	0.1559	91=90=89=88
	등조성	21.03	20.81	20.91	20.48	22.79	7.60	3	0.42	0.7362	88=90=89=91
	인정성	19.64	19.49	19.60	19.40	22.71	7.60	3	0.35	0.7888	91=88=89=90
	독립성	21.41	20.64	21.06	21.27	142.24	47.41	3	0.49	0.6880	91=90=89=88
	호의성	20.78	21.85	21.06	21.10	63.47	21.16	3	0.27	0.8480	89=91=90=88
	지도성	16.98	17.06	16.82	17.17	498.74	166.25	3	1.34	0.2622	89=91=90=88

*P<.05

표. 3 각 연도별 입학생 가치관의 비교 (P value)

요인	년도	1990	1989	1988	1989	1988	1988
	1991	1991	1991	1990	1990	1989	
실용성	0.6787	0.2234	0.2067	0.0941	0.3846	0.0125*	
성취성	0.1177	0.8254	0.2432	0.1512	0.6076	0.3211	
다양성	0.0590	0.0332*	0.0017*	0.9185	0.4149	0.2631	
결단성	0.7235	0.0774	0.1520	0.1175	0.2400	0.6350	
규칙성	0.3188	0.1117	0.0830	0.9578	0.9457	0.9843	
목적지향성	0.3764	0.5983	0.0614	0.5486	0.7571	0.1449	
지지성	0.2351	0.1973	0.0278*	0.8717	0.2663	0.3759	
등조성	0.7437	0.8871	0.2967	0.8407	0.4548	0.3297	
인정성	0.4927	0.5443	0.5317	0.8745	0.8663	0.9965	
독립성	0.4770	0.3815	0.2705	0.8609	0.7754	0.9449	
호의성	0.8454	0.7707	0.5869	0.5944	0.7167	0.3371	
지도성	0.2971	0.9471	0.0774	0.2831	0.4805	0.0836	

*P<.05

학년별 가치성향을 개인, 대인가치관으로 구분하여 보면 91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 요인에서 다양성은 가장 높게, 결단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인정성을 가장 높게, 호의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90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에서 목적지향성을 가장 높게, 성취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인정성을 가장 높게, 지지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89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에서 결단성을 가장 높게, 목적지향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을 가장 높게, 독립성을 가

장 낮게 나타내 보였다. 또한 88학년도 입학생에 있어서는 개인가치관에서 목적지향성이 가장 높고 성취성이 가장 낮으며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이 가장 높고 등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간호대학생들의 가치성향을 그들 아버지의 직업별로 보면 실용성은 사무직(20.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직(20.02), 전문직(19.89), 기타(19.74), 서어비스(19.67), 농업(19.64)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성은 농업(21.00), 판매직(20.84), 서

표. 4 전체 요인간 상관관계

	실용성	성취성	다양성	결단성	규칙성	목적지향성	지지성	동조성	인정성	독립성	호의성	지도성
실용성	1.000											
성취성	-0.298	1.000										
다양성	-0.081	0.002	1.000									
결단성	-0.389	-0.030	-0.069	1.000								
규칙성	0.098	-0.241	-0.478	-0.224	1.000							
목적지향성	-0.218	-0.085	-0.566	0.019	0.372	1.000						
지지성	-0.000	0.041	-0.025	-0.002	0.056	0.056	1.000					
동조성	0.111	-0.103	-0.082	-0.095	0.114	0.051	-0.604	1.000				
인정성	0.049	0.055	-0.012	0.018	-0.121	0.032	0.452	-0.252	1.000			
독립성	-0.115	0.138	-0.044	0.062	-0.057	0.057	0.635	-0.404	0.610	1.000		
호의성	0.007	0.087	-0.039	-0.087	0.032	0.024	0.487	-0.393	-0.054	0.256	1.000	
지도성	-0.013	0.062	-0.087	-0.085	-0.085	-0.100	0.786	-0.554	0.129	0.479	0.486	1.000

어비스(20.57), 사무직(20.45), 전문직(20.43), 기타(20.00)순이며, 다양성은 사무직(17.39), 판매직(17.17), 기타(16.95), 전문직(16.84), 서어비스(16.52), 농업(15.46), 이고 결단성은 전문직(20.70), 판매직(20.66), 서어비스(20.57), 농업(20.55), 기타(20.42), 사무직(20.35)순으로 나타났다.

규칙성은 농업(23.64)에서 가장 높고 점수를 보였고 판매직(20.23)에서 가장 낮았으며 목적지향성도 농업(26.00)에서 가장 높았고 판매직(21.06)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지성은 농업(24.64)에서 가장 높고 기타(19.74)에서 가장 낮았으며 동조성은 서어비스업(22.05)이 가장 높았고 농업(20.36)이 가장 낮았고 인정성은 전문직(20.90)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18.37)에서 가장 낮았다.

독립성은 전문직(22.92)에서 가장 높았고 판매직(20.73)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도성에서는 농업(18.09)이 가장 높았고 기타(16.37)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호의성에 있어서는 기타(23.21)가 가장 높았고 농업(20.27)이 가장 높았다. 단지 규칙성과 목적지향성에 있어서 입학생 아버지의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 ($P < .05$)를 나타내었고 그 밖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형제수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88년, 89년, 90년, 91년 입학생 전체의 가치관을 요인별로 비교한 결과 형제수에 따라 개인가치관에서 실용성, 성취성, 결단성, 규칙성, 대인가치관에서 지지성, 동조성, 인정성, 독립성, 지도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개인가치관에서 목적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형제수에 따라 목적지향성이 달라짐을 볼 수 있고 대인가치관에서 호의성은 형제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형제가 없는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5$).

입학생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실용성, 성취성, 다양성, 결단성, 동조성, 인정성, 독립성, 호의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규칙성, 목적지향성, 지지성, 지도성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모두 60세 이상의 아버지를 가진 군에서 4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 실용성, 성취성, 결단성, 목적지향성, 지지성, 동조성, 인정성, 독립성, 호의성, 지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양성은 서울과 직할시 집단에서, 규칙성은 지방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개인 및 대인가치관의 평균값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래 희망별로는 결단성에 있어서 교수 및 간호사를 희망한 군에서 박사, 교사, 사회사업가, 간호사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V. 고 찰

최근 생의학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간호사들은 근무시 새로운 임상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과학이 환자나 간호사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많은 윤리적 갈등을 낳게 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데 문헌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자를 분담받았을 때 간호사 개인

가치와 의무 사이에 절충해야 하는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간호학은 대상자가 인간으로서 전문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를 통하여 윤리적인 측면에서 돌봄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동기와 동인이 필요한데 이 동기는 개인 가치관과 직업가치관에 의하여 유발된다. 많은 문헌에서 보면 가치와 가치관은 학습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자들은 인본주의적, 이타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그들이 입학 당시부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 연도별 입학생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고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Y대학교 간호대학 입학생의 4년간 가치관은 황응연과 이경혜(1986)의 표준화된 여대생의 72~97 percentile에 속하였다. 그리고 Gordon(1976)의 여대생 표준화 점수의 67~92percentile에 속하였다. 이경혜(198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경혜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가치관을 학년별로 비교하였는데 본 Y대학교 입학생의 가치관 평균이 그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전인적 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려면 높은 가치관을 가진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높은 가치관의 소유자인 학생을 4년간 체계화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더 높은 가치관을 갖도록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대인가치관에 있어서 호의성, 독립성, 동조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가치관은 대상자를 돕고 지지하고 독립적이며 호의를 보아야 할 전문직 간호사의 준비과정을 시작하는 입학생의 적합성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

Jacob(1957)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창시절 동안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전역을 통하여 전공영역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가치관은 동질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Feldman과 Newcomb(1969)은 학생들의 가치관은 소속학교, 교과과정, 각 학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가치관은 학창시절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경혜(1985)는 간호대학 4년간의 일반적 가치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면서 가치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과정의 재정비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도덕, 윤리적 가치관과 일반인의 가치관을 전정자(1981)가 연구발표하였는데 간호사와

일반인의 가치관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살 계획된 교육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대조되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Y대학교 입학생의 4년간(해마다)의 가치관에는 변화가 없음이 나타났고 Garvin과 Boyle(198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Garvin과 Boyle은 지난 10년 동안 간호대학생의 가치관은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O'Neill(197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은 호의성을 높게 나타내었고 동조성을 낮게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보면 호의성, 독립성,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고 과거의 다른 연구결과보다 모든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학생으로서 또한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학생의 각 연도별 가치성향을 보면 개인가치관의 다양성은 91학년도 입학생에서 가장 높았고 88학년도 입학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각 학년 입학생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요인에서는 모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또한 가치관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뚜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단지 특기할 것은 모든 요인에서 기존 연구와 표준화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가치관 차이에 대한 고찰

전문직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자질과 이상적인 직업적 자질이 일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학창시절 동안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많은 실험연구를 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약간의 기질 특성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으며 (Cain, 1983),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보다 보수적이고 환자의 요구나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에 대하여 더 무딘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Leserman, 1980).

본 연구에서 보던 대인가치 중 지도성(17.06)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O'Neill(197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반대학생의 평균(11.4), 간호대학생의 평균(11.7)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은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자적 자질이 요구된다. O'Neill의 연구는 거의 20여년 전의 연구로서 그동안 모는 분야, 또한 간호학에서도 전문적으로서 지도성이

많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학교과과정의 교과내용을 많이 개선하였다. 높은 지도성의 결과는 앞으로 학생이 입상에서나 졸업 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기대를 예기케 한다.

Helping Professions, 즉 간호학, 사회사업, 의학, 약학과 같은 전문직은 건축학, 법학, 공학이나 경영학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실제 상황에 가치와 태도를 더 잘 통합시키려고 고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교과과정 중 임상윤리(Technical Ethics)나 Critical evaluation of societal implication 과 결과에 대하여 교육해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다(Brown, 1983).

Blume(1963)은 Texas에 있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호의성은 계속적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저하됨을 나타내었고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Artistic episodes of life 와 Practical affairs of the bussiness world가 낮게 나타난 반면 이타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관을 나타내었다. O'Neill(1973)의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이 일반여자 대학생보다 지지성, 독립성, 호의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동조성, 인정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Blume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Blume의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지지성과 독립성이 다른 대학생 표준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인 가치관 차이로 해석되고 있다.

Wuthnow(1986)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간호학에 있어서 인류평등주의와 지성주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향은 과거에 간호가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충성의 가치를 지향한 종래의 가치관을 인류평등과 지성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고 하였다.

김주희(1982)는 임상실습 후 학생들의 불안정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갈등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한 입학생에게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가치관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 및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사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대상자를 위하여 잘 계획되고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이원희(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370명 중 윤리적 기준이 매우 확고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4%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비교적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유동적 성향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Thurston(1980)은 Rokeach Value Survey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교수와 3년간 입학생과의 가치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집단에서는 직업적 가치와 인간존엄요인이 평등과 심미감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고 심미감보다는 이타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경혜(1985)는 학년별 가치관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1, 2, 4학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가치성향을 보였다고 하며 다른 학년과는 다르게 지도성이 올라가고 동조성이 낮아진 것은 교육과정의 영향 때문인지 또는 학생집단의 독특한 현상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운 흥미있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저한 가치관 저하는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에 새로운 학습경험이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우리 간호교육자들이 그들의 교육목표를 오로지 지식과 기술주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지 않았나 하여 간호교육자의 자질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암시할 수 있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가치체계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사회가 갖고 있는, 혹은 그 속에서 회구되는 새로운 가치나 미래에 대한 이상은 학생의 내발적 노력과 결부시킴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함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간호교육자들은 교육의 최대목적을 과학적 인간주의에 기초하여 좋은 인간을 배출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O'Neill(1973)은 간호대학생과 사회학 계열의 학생을 비교할 때 가장 높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사회학 계열 학생은 Personal Power와 지배성이 현저하게 높고 간호대학생은 관계에 있어서 이타주의적인 면과 박애주의적인 면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이튼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의과대학생은 힘과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조화시키면서 경험적, 비판적, 합리적인 면에 매우 높은 가치기준을 두었는데 간호대학생은 종교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타주의와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대상자에게 시어비스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점은 치료와 돌봄의 차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Y대학교 4년제 간호대학 입학생의 4년간의 개인가치관과 대인가치관의 정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88 입학생부터 1991년 입학생까지를 대상으로 L.V.Gordon이 개발한 SPV(Survey of Personal Values)와 SIV(Survey of Interpersonal Values)를 황용연과 이경혜(198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4년간의 입학생 총 35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가치관에는 목적지향성(21.44)이 가장 높고 다양성(17.13)이 가장 낮았으며,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21.19)이 가장 높았고 지도성(17.00)이 가장 낮았다.
2. 표준화된 일반여대생의 점수와 비교해보면 개인가치관은 78-97percentile에 속하였고 대인가치관에서는 72-97percentile에 속하였다.
3. 연도별 입학생들의 가치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 학년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4. 학년별 가치성향을 개인, 대인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91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 요소 중에서 다양성을 가장 높게, 결단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인정성을 가장 높게, 성취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인정성을 가장 높게, 지지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89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에서 결단성을 가장 높게, 목적지향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고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을 가장 높게, 독립성을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또한, 88학년도 입학생은 개인가치관에서 목적지향성이 가장 높게, 성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이 가장 높게, 동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아버지의 직업별 가치관 유의도 검증에서는 개인, 대인가치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6. 형제수별에 의하여 비교해 본 결과 형제가 없는 경우가 개인가치관의 목적지향성에서 다른 집단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고 대인가치관에서는 호의성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P < .05$).
7. 아버지의 연령별 요인에 따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집단에서 규칙성, 목적지향성, 지지성 그리고 지도성에서 다른 집단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P < .05$).

8. 출신별 요인에 따라 검증한 결과, 다양성은 서울 및 직할시출신이 지방출신보다 의미있는 높은 차이를 보였고 ($P < .05$) 규칙성에서는 역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5$).
9. 종교별 요인을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5$).
10. 장래 희망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장래 희망이 교수 및 간호사인 집단에서 교사, 간호사, 박사, 사회사업가 집단보다 결단성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P < .05$).
11. 입학연도간 유의도 검증에서는 89학년도와 91학년도 입학생 간에는 다양성에서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여 91학년도 입학생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88학년도와 89학년도 입학생 사이에서는 다양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 ($P < .01$)가 나타나 91학년도 입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지성에서도 91학년도 입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5$). 88학년도와 91학년도 입학생을 비교하면 실용성에서 89학년도 입학생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5$).

이 연구를 통하여 Y대학교 간호대학의 4년간 입학생의 가치성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변수와외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높은 가치점수를 나타내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계화된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종적 설계를 하여 특정기간을 두고 그들의 교육경험에 따른 가치관의 경향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다른 가치관 검사도구, 즉 Allport-Vernon-Lindzey(AVL)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결과를 비교해 봄이 바람직하다.
- 셋째, 종적연구를 할 때 교수의 가치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하여 결과를 일반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교육 동안 전문적 가치관 확립과 중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정비와 평가가 요구되고 교육전략을 수립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한 전반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야겠다.

여섯째, 다른 변인과의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여 열악한 조건의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높은 전문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상담 및 지도해야겠다.

참 고 문 헌

- Bloomquist, B., Cruise, P. & Cruise, R. (1980). Valu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secular and religious schools. *Nursing Research*, 29, 379-383.
- Blume, D.(1963). *Internat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exas University, Austin.
- Brink, P.J. (1984). Value orientations as an assessment tool in cultural diversity. *Nursing Research* 33(4), 198-203.
- Brown, F.K.(1983). Technical Ethics. *Engineering Education*, 73(4), 298-300.
- Cain, M.J., Silerman, S.L., Mahan, J.M. & Meydreeh, E.(1983). Changes in dental students' personal needs and value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7(9), 604-608.
- Carr, W.(1970). Values and Curriculum.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Washington D. C., 76.
- Caspary, W.R.(1990). Judgements of value in John Dewey's theory of ethics. *Educational theory*, 40 (2), 155-169.
- Collins, M. (Editor) (1983). *Teaching values and ethics in college*. San Francisco : Jossey-Bass.
- Frisch, N. (1987). Value analysis : A method for teaching nursing ethics and promoting the moral development of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6, 328-332.
- Fry, S.T. (1988). The ethic of caring: Can it survive in nursing?. *Nursing Outlook*, 36(1), 48.
- Fry, S.T.(1989). Teaching ethics in nursing curricula :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odel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2), 485-497.
- Fry, S.T.(1987). Outlook on ethics : ethical decision making : Part I : Selecting a framework. *Nursing Outlook*, 37(5), 248.
- Garvin, B. & Boyle, K. (1985). Values of entering nursing students : Changes over 10yr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8, 235-241.
- Gaul, A.L.V.(1989). Ethics content in baccalaureate degree curricula ; Clarifying issue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2), 475-483.
- Grunberg, L. (1978). Rationality and the basis of the value judgement. *Journal of Values Inquiry*, 12:26.
- Hedin, B.A. (1989), Nursing keducational and sterile ethical fiel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1 (3), 43-52.
- Hilbert, G.A. (1988). Moral development and unethical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4(3), 163-167.
- Jacob, P.E. (1957). *Changing values in college*. New York, Harper & Brothers.
- Ketefian, S. (1981). Moral reasoning and moral behavior among selected groups of practicing nurses. *Nursing Research*, 30, 171-176.
- Ketefian, S. (1981). *Judging ethical issues in nursing ; Research strategy and selected correlates in the nursing profession*. McGraw-Hill, New York. 237-249.
- Kramer, K. & Hafner, L. (1989). Shared values: Impact on staff nurse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 productivity. 38(3)172-177.
- LaMonica, E. (1979). *The nursing process. A humanistic approach*. Addison-Wesley, Menlo Park, CA., 503-505.
- Leserman, J. (1980). Changes in the professional orientation of medical students : A follow-up study.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5(5), 415-422.
- Lindell, A. (1985). Ethics, values and righ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2), 71.
- Mackenzie, N. (1971). *The professional ethic and the hospital service*. The English Universities Press, London.
- Ncaves, J.J. (1989). The relationship locus of control to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28(10), 12.
- Odom, J.C. (1988). The status of ethics instruction in the health education curriculum. *Health Education*, 19(4), 9-12.
- Omery, A. (1989). Values, moral reasoning, and ethic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2),

- 499-508.
- O'Neill, M. (1973). A stud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value. *Nursing Research*, 22, 437-443.
- Penn, W.Y. (1990). Teaching ethics—a direct approach.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2), 124-128.
- Potter, P. & Perry, A. (1985). *Fundamental of nursing—concepts, process and practice*. Mosby, St. Louis.
- Raya, A. (1990). Can knowledge be promoted and values ignored?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504-509.
- Raatikainen, R. (1989). Values and ethical principles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4(2), 92-96.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arvimaki, A. (1988). Nursing care as moral, practical, communicative and creative activit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3, 462-467.
- Stark, J.S., Sowther, M.A., & Hagerty, B.M. (1986). *Responsive Professional Education: Balancing outcomes and opportunities*.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No. 3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Styles, M. (1982). On Nursing. *Toward a New Endowment*. Mosby, St. Louis.
- Sweider, S.M. (1985). Ethical decision making in a bureaucratic context by senior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34(2).
- Thurston, H., Flood, M.A., Shupe I.S. & gerald, K. B. (1989). Values held by nursing faculty and students in a university sett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5(4), 199-207.
- Viens, D.C. (1989). A history of nursing's code of ethics. *Nursing Outlook*, 37(1), 45-49.
- Watson, J. (1985).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Norwalk, Conn.
- Williams, M.A., Bloch, D.W. & Blair, E.M. (1978). Values and value change of graduate nursing students; Their relationships to faculty values and to selected educational factors. *Nursing Research*, 27(31), 181-189.
- Whitnow, S. (1986). Shifting world views among nurse. *Nursing Outlook*, 34, 6-7.
- 김주희 (198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대한간호, 21(1), 45-55.
- 이경혜 (1985). 간호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가치관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5(13), 21-29.
- 이귀윤 역 (1984). 교육과정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이원희 외 (1988).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27(5), 79-97.
- 전산초, 김인숙 (1988). 일개 간호대학생의 가치관과 간호학에 대한 태도 및 진로방향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집, 11 96-107.
- 전산초 외 (1979). 간호철학. 윤리. 서울:수문사.
- 전정자 (1981). 간호원의 도덕, 윤리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1(3):211-223.
- 정범모 (1983). 가치관과 교육. 서울:배영사.
- 정세구 (1983). 가치이론과 가치교육. 서울:교육출판사.
- 황응연 (1978). 대학생의 가치관과 가치변인에 관한 연구. 비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황응연, 이경혜 (1986). 개인, 대인 가치관 검사: 교교, 대학, 성인용, 코리아 테스트 센터.

A four year study of the personal and interpersonal value systems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at Yonsei University*

YunSo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values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to determine changes each year over the four years of the study and to provide base data for curriculum and student guidance.

The sample consisted of the freshman students who entered college of nursing from 1988 through 1991. The total sample was 358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during March of each of the four yea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categories of values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s for each year and the demographic data.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the Survey of Personal Values and Interpersonal Values modified by UngYun Hwang and KyungHae Lee in accordance with L.V. Gordon's instrument. This tool provides scores on practical mindedness, achievement, variety, decisiveness, orderliness, goal orientation, support, conformity, recognition, independence, benevolence and leadership.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nursing freshman students surveyed had the highest score for goal orientation (21.44) and the lowest for variety (17.13) on the SPV (Survey of Personal Values) and the highest score for benevolence (21.19) and lowest for leadership (17.00) on the SIV (Survey of Interpersonal Value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scores for Gordon's SPV for other woman college students, the students in the study were between the 78%ile—97%ile and were in the 72%ile—97%ile for the SIV.
2. When t-test scores were compared, no significant variation was found between the years for each of the values ($P < .05$).
3. A significant variation was found on variety, between 1989 and 1991 ($P < .05$), and between 1988 and 1991. The highest score was in 1991 in both comparisons. Supporting was also higher for 1991 than for 1988 ($P < .05$).
4. Religion and occupation of fathe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alues according to the student's religion or the occupation of their father.

Students born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a higher score on variety than those from the rural area and vice versa on regularity ($P <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higher score on values for Y University freshman than shown for freshmen in other universities reported from other research. To keep or promote value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re be a systematic strategy of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 This study was funded by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